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李 丞 宰
(聖心女大)

(目 次)

Ⅰ. 서론
Ⅱ. /ㄱ/ : /ɸ/
Ⅲ. /ㄷ/ : /ㄹ/
Ⅳ. /ɸ/ : /ㄹ/
Ⅴ. 결론

Ⅰ. 서 론

이 글은 釋讀口訣 資料를 중심으로 高麗中期의 形態音素論的 交替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고려 중기의 석독 구결 자료로는 《舊譯仁王經》(上), 《華嚴經疏》(卷 第三十五), 《華嚴經》(卷 第十四), 《瑜伽師地論》의 네 가지가 알려져 있다.[1] 이 중에서 《華嚴經疏》와 《瑜伽師地論》은 아직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의 구결 자료만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南豊鉉(1985)는 《舊譯仁王經》 구결이 12세기 경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 南權熙(1993)은 《華嚴經》이 12세기 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하나로 묶어 '高麗中期'의 구결 자료라고 표현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고려 시대의 音韻體系나 音韻現象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鷄林類事》와 李基文(1963)이 소개한 《鄕藥救急方》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語彙 資料集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와 형태가 통합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音韻現象을 보여 주는 데에는 미흡하다. 예컨대 15세기에는 繫詞 다음의 先語末語尾 '-거-'가 '-어-'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위의 두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鷄林類事》나 《鄕藥救急方》은 계사나 선어말 어미 '-거-' 등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文章資料가 아니기 때문이다. 高麗時代의 각종 吏讀文은 문장 자료이긴 하나 形態音素論的 交替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吏讀 자료에는 계사 '-是(이)-'에 선어말 어미 '-去(거)-'가 직접

* 이 논문은 1994년도 성심여자대학교 일반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임을 밝혀 감사드린다. 이 논문의 草稿는 1994년 2월 口訣硏究會(대구 경북대)와, 1994년 7월 제 9회 ICKL 연구발표회(University of London, London)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앞의 발표 내용을 크게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華嚴經疏》는 南權熙(1994)에서 새로이 공개된 자료이다. 석독 구결 자료에 安秉禧(1987)이 소개한 均如의 方言本 著述도 추가할 수 있다.

통합된 '-是去(이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是去(이거)-'는 朝鮮朝의 吏讀 자료에도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즉 吏讀 표기의 保守性 탓으로 현실적으로 진행되었던 형태음소론적 교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鄕歌 자료에서는 형태음소론적 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表記에 反影되었다. 예컨대, '-隱(은)'과 '-焉(ᄋᆞ)'을 구별하여 母音調和의 짝을 표기에 반영하려 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梁柱東 1965, 金完鎭 1982 참조). 그러나, 향가의 표기가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 民焉 狂尸恨 阿孩古(安民歌 3)
나. 奪叱良乙 何如 爲理古(處容歌 8)
다. 西方念丁 去賜里遣(願往生歌 2)
라. 日遠鳥逸 □□過 出 知遣(遇賊歌 3)
마. 伊 知皆矣 爲米(請佛住世歌 7)(밑줄 필자, 이하 같음)

15세기에서는 계사 '-아-'나 선어말 어미 '-리-' 뒤에 오는 連結語尾 '-고'나 疑問添辭의 '-고/가'가 각각 '-오'와 '-오/아'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향가에서는 (가-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교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5세기에서는 '알十고'는 '알오'로 '살十게'는 '살에'로 표기되는바 'ㄹ' 뒤의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데, 향가에서는 (라-마)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교체가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향가 자료만을 토대로 'ㄱ→ㅇ'의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논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2)]

이 점에서 高麗中期의 釋讀口訣 資料는 고려 중기의 形態音素論的 交替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은 여러 文法形態素들이 統合될 때 일어나는 音韻現象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들 구결 자료에는 문법 형태가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컨대, 선어말 어미 '-去(거)-'는 '-ㅋ(어)-'로도 표기되고 終結語尾 '-ㅣ(다)'는 '-四(라)'로도 표기되고 있으므로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 나타나는 共時的인 音韻現象과 더불어 音韻史的으로 價値가 있는 현상도 기술할 것이다. 이 두 자료는 고려 중기의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15세기까지의 歷史的 變化 過程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史的 變化의 기술에는 高麗後期의 口訣 자료도 부분적으로 참고하게 될 것이다.

2) 이 글에서의 향가 자료는 解讀에 異見이 없는 자료로 한정하여 인용하되, 異見이 있을 때에는 金完鎭(1980ㄴ)의 해독을 기준으로 삼는다.

Ⅱ. /ㄱ/ : /ø/

《舊譯仁王經》의 '-ㅅ(과)'는[3] 共同格 助詞 '-과/와'를 표기하였다.

(1) 가. 色ᄉᆞ如ᄉᆞ ノ仝ㅅ 受相行識ᄉᆞ如ᄉᆞ ノ仝ㅅ 衆生我人常樂我淨ᄉᆞ如ᄉᆞ ノ仝ㅅ 知見壽者ᄉᆞ如ᄉᆞ ノ仝ㅅ 菩薩ᄉᆞ如ᄉᆞ ノ仝ㅅ 六度四攝一……觀ソ, 不多ノ矛リナ丨(三, 23-25)

나. 等ㅅ 慧ㅅ 灌頂ㅅ七 三品士ㄱ(十一, 1)

다. 唯ハ 佛ㅅ 與七 佛ㅅリニシ(十一, 24)

라. 是乙 名ゝ 無量名字ᄉᆞ ノ矛ㄱᄉᆞ空法ㅅ 四大法ㅅ 心法ㅅ 色法ㅅ, 如丨ソㄱリう(十四, 6-7)

마. 五色等ソㄱ 法ㅅ 有無七 一切等ソㄱ 法ㅅ, 如丨ソㄱリう(十四, 8-10)

바. 十住菩薩ㅅ 諸ニㄱ 佛ㅅ七 五眠刀(十四, 13)

사. 有ㅅ 無ㅅ七 義リ 是リ, 如丨ソナ丨(十五, 2)

아. 有ㅅ 無ㅅㄱ 本ゐハ 自ラ 二リㄱ矢(十五, 3)[4]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ㅅ(과)'는 '-과'와 '-와'의 환경에 모두 쓰였다. 15세기에서는 母音과 'ㄹ' 다음에는 '-와'가 오고 'ㄹ' 이외의 子音 다음에는 '-과'가 옴으로써 音韻論的인 條件에 따라 '-와'와 '-과'가 교체되었다. 그러나,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서는 이러한 교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의 口訣字 '-ㅅ(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고려 중기에는 공동격 조사의 發音이 '과[gwa]'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ㅅ[gwa]' 하나로 고정하여 표기하였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고려 중기에 이미 현실적으로 '과[kwa]'와 '와[wa]'가 교체되었으나 口訣字에는 이 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14세기 初頭의 자료인 《梵網經》 구결에서는 '-과'와 '-와'가 분명히 구별되어 표기되었다(李丞宰 1990 참고).

(2) 가. 菩薩ㄱ 聞外道惡人果 及二乘惡人果リ(梵網 11b)

나. 菩薩ㄱ 見外道ㅅ 及以惡人果リ 一言ッ 謗佛音聲口斤(梵網 13b)

---

3)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李丞宰(1993)을 따라 口訣字 'ㅅ'에 한글 轉字 '과'를 붙인다. 口訣吐에도 '不矢う丨(안디오다)'처럼 한글 轉字를 제시하기로 한다. 밑줄을 그은 것도 역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이하 같음).

4) '十五'는 張次이고 '3'은 行次이다. 이 張次와 行次 사이에 ','를 넣은 것은 《舊譯仁王經》의 자료이고 넣지 않은 것은 《華嚴經》 자료이다.

다. 若燒他人家屋宅城邑僧房田木果 及鬼神官物ㄹ令ㅌ下(梵網 20a)

(3) 가. 懺悔ソ라ㄱ 即安樂ソ矛令ㅌ人(梵網 1a)

나. 復轉爲千百億釋迦人 及一切衆生ソ〻(梵網 3a)

다. 爾時千花上佛人 千百億釋迦人ㄹ(梵網 3a)

라. 得見好相ソ라ㄱ 便得戒ソ矛令ㅌ人 若不得好相ㄹ令入ㄱ(梵網 24b)

마. 於六齋日人 年三長齋月〻(梵網 28a)

'-과'는 '-果(과)'로, '-와'는 '-人(와)'로 표기되어 '-과'와 '-와'의 교체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3.다)의 '佛人(와)'와 (3.마)의 '六齋日人(와)'에서 'ㄹ' 뒤에 '-人(와)'가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梵網經》 시기 즉 14세기 초엽의 '-과'와 '-와'의 교체 조건이 15세기와 완전히 같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14세기 초엽에는 이미 '과[kwa]'와 '와[wa]'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鄕歌와 吏讀 자료에서 '-과'와 '-와'를 구별하여 표기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두 자료에 공동격 조사를 표기한 '-果(과)'가 나오기는 하나 '-과'와 '-와'를 구별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었다.

(4) 가. 再班□奴婢傳來辨別果 婢夫奴妻矣 良賤 至亦(高麗末戶籍文書 둘째폭 4-6)

나. 國史及公及官文載錄者果 衆所共知祖上乙良 并以 載錄爲遣(高麗末戶籍文書 둘째폭 19-20)

따라서, '-과'와 '-와'를 각각 '-果(과)'와 '-人(와)'로써 구별하여 표기한 것은 口訣資料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3)의 《梵網經》 자료는 音韻史的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口訣字 '十(히)'는 '中'에서 온 구결자로서 '히'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近代의 吏讀學習書에서 '良中(아히)'를 '-아히'로 읽는 것을 좇아서 '十(히)'를 '히'로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중기의 구결 자료에는 '히'로 읽지 않고 '긔/게'로 읽었음직한 자료들이 나온다.

(5) 가. 爾七ソㄱ 時十 大王ㄱ 復ソㄱ 起ソ〻 作禮ソ白ㅁ 佛十, 白〻 言ニ尸(三, 22)

나. 佛ㄱ 大王ヲ十, 告ニ尸 汝ㄱ 於 過去七 七佛十 已シ 一リで七 義ミ 二リで七 義ミノ乙, 問白〻ハニㄱリ四(十四, 20-21)

다. 佛十, 白〻 言ニ尸 云何七ミ 十方七 諸ニㄱ 如來ミ 一切菩薩ミノ矛 文字乙, 離不多ソ〻 而ㅁ 諸ㄱ 法上〻十, 行ソニ方七丨ソロう令う(十五, 21-22)

(5.가)와 (5.다)에 나오는 '佛十(긔)'는 15세기의 '부텻긔, 부텨긔'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十'를 '긔/게'로 읽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5] (5.나)에 나오는 '七佛十(긔)'의 '十'도

이른바 與格 助詞로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舊譯仁王經》 구결에서는 非尊稱名詞의 여격 조사로는 'ㅋ+(의게)'가 쓰여 尊稱名詞의 '十(긔)'와 對立된다. 이는 (5.나)의 '大王ㅋ+(의게)'와 '七佛+(긔)'의 대립에서 잘 확인되는데, 존칭명사에 통합되는 15세기의 여격조사 '-ㅅ긔, -쇠'의 'ㅅ'은 구결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른바 非尊稱 與格 助詞로 쓰인 'ㅋ+(의게)'의 예를 더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가. 次第ゟ … 八百人ㅋ十, 問ニう(三, 1-2)
나. 復ソㄱ 須菩提ミ 舍利弗ミソ尸 等ソニㄱ 五千人ㅋ十, 問ニう(三, 1-2)
다. 復ソㄱ … 十千人ㅋ十, 問ソニうソニㄱ乙 能矢 答ソニ令七 者, 無七でハニ丨(三, 2-3)
라. 爾七ソㄱ 時十 佛ㄱ 大衆ㅋ十, 告ソニ尸(三, 17)
마. 佛ㄱ 諸ㅋ 道果乙, 得ナㄱ 實天衆ㅋ十, 告ニ尸(十一, 20)

존칭명사에 통합되는 '十(긔)'와 비존칭명사에 통합되는 'ㅋ+(의게)'의 대립은 《華嚴經》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7) 가. 爾ミ七ソㄱ 時十 智首菩薩ㄱ 文殊師利菩薩尸十 問ゝ 言勿尸(一 4)
나. 於佛リ 菩薩尸十 常リ 淨信乙 生ソで立(六 8)
다. 於佛リ 菩薩尸十 能支 恩德乙 知で立(六 10)
라. 爾時十 文殊師利菩薩ㄱ … 偈乙 以ゝ 賢首菩薩尸十 問ゝ 曰ニ尸(八 20-21)
마. 是リ, 如支ソㄱ 一切尸十 皆七 自在令ソトうㄱのㄱ 佛 華嚴三昧七 力乙 以シナ立丨(十五 7)

(8) 가. 大小師ㅋ十 詣云ㄱ丨十ㄱ 當 願 衆生 巧リ 師長乙 事ハ白ゝハ 善法乙 習行ソで立(三 8)
나. 衆生ㅋ十 限う 無ㄱで七 利う尸のㄱ 與ソで不う(十二 7)
다. 於彼衆ㅋ十 師長リ尸の乙 作ソう(十九 19)

(7.가-라)의 '菩薩尸十(읋긔)'와 '一切尸十(읋긔)'는 與格語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十(긔)'는 여격 조사를 표기한 것이다. 이곳의 '尸'을 'ㅅ'으로 읽어 '尸十'가 정확하게 'ㅅ긔'를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장희 1994). 그러나, 《舊譯仁王經》에서는 존칭 여격 조사가 '尸(읋)'이 없는 '十(긔)'로만 나타난다는 사실과 《華嚴經》에 나오는 '尸十(읋긔)'의 音韻論的 環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의 '尸十'가 '菩薩, 一切' 등 'ㄹ'로 끝나는 명사에 붙었음을 감안하면 이곳의 '尸(읋)'이 末音添記字로 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尸十(읋긔)'의 '十(긔)'만 여격 조사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5)

5) 이미 南豊鉉(1993)이 이들을 감안하여 '十'를 '긔'로 읽은 바 있다.

에서의 '十(긔)'의 용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8)의 'ㄹ十(의게)'가 (6)의 'ㄹ十(의게)'와 일치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處格 助詞의 표기에 쓰이는 'ㅇ十(아ᄒᆡ)'의 '十(ᄒᆡ)'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9) 가. 花上ㅇ十 皆七 量, 無七ㄱ 國土ㄹ, 有七うㄱム(二, 4-5)
　　나. 今日ㅇ十 如來ㄹ 大光明乙, 放ソニトうㄱのㄱ(二, 23)
　　다. ㅁㅇ十 常ㄹ 說法ソ白うㄕム(十一, 10)
(10) 가. 樓閣ㅇ十 上昇ソ云ㄱㅣ十ㄱ(三 2)
　　나. 其願乙 滿足ソㅇ尒 心ㅇ十 羨欲ノ尸 無で立(七 14)
　　다. 一切 佛ㄹ 其前ㅇ十 現で勿矛う(十二 15)
　　라. 一ㄱ 微塵七 中ㅇ十 三昧ㅇ十 入ノ尸ム(十五 8)

近代國語 時期의 吏讀 學習書에서 '良中'을 '아ᄒᆡ'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 'ㅇ十(아ᄒᆡ)'에 대응하는 15세기의 처격 조사는 '-에/애/의/ᄋᆡ/예'로 나타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ㅇ十(아ᄒᆡ)'의 '十(ᄒᆡ)'까지도 '긔/게'로 읽을 수 있을까? 즉, 처격 조사의 표기에 쓰이는 'ㅇ十(아ᄒᆡ)'의 '十(ᄒᆡ)'는 정확히 그 音價를 밝힐 수는 없지만 '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에/애/의/ᄋᆡ/예' 등으로 읽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口訣字 '十'가 'ㄱ'을 가지는 '긔/게'도 표기하고 'ㄱ'이 없는 '에/애/의/ᄋᆡ/예'도 표기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바, 여기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때에도 共同格 助詞 '-ㅅ(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高麗中期에는 '-긔/게'와 '-에/애/의/ᄋᆡ/예'가 모두 [g]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十'로써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성립한다. 둘째, 고려 중기에 이미 與格의 '-十(긔)'는 [k]를 가지고 處格의 'ㅇ十(아ᄒᆡ)'는 [k]를 가지지 않았지만 이 차이를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성립한다. 첫째 견해가 一字一音의 原理(李崇寧 1955 참조)에 따라 借字表記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견해라고 한다면, 둘째 견해는 借字表記法이 不完全하다는 점을 前提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다음에 논의할 'ㄱ' 脫落 現象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15세기에는 繫詞 다음의 先語末 語尾 '-거-'는 '-어-'로 交替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계사 다음에서는 'ㄱ → ㅇ'의 규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마침 《舊譯仁王經》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 예가 있어서 주목된다.

(11) 가. 今日ㅇ十 如來ㄹ 大光明乙, 放ソニトうㄱのㄱ 斯毛ソ巴ハ 何七ソㄱ 事乙, 作ソ七亻ソニトㄱリㅇ七ロソでハニう(二, 23)
　　나. 於解ㅇ十 常ㄹ 自ゟ 一リう 於諦ㅇ十 常ㄹ 自ラゟ二リㄱリㅇ七ㅣソㅇ(十五, 5-

6)

다. 幻師ㄹ 幻法乙, 見尸矢七ソ〻 諦實ㅅソロ기 即う 皆七 無ソ기ㄹ〻七ㅣソ尸の乙 名〻 爲 諸佛七 觀ミノ矛ㄹう 菩薩七 觀刀 亦ソ기 然七ソナㅣ(十五, 9-10)

(12) 가. 等ㅅ 慧ㅅ 灌頂ㅅ七 三品士ㄱ 前ㄹ 餘ソ기 習ㄹ기 無明緣ミ 無明習相ㄹ기 故七 ノ기で七 煩惱ミノ乙, 除ソニトう기のㄱ 二諦理乙 窮〻 一切之七 盡〻ニ기のㅅ ㄹうㅣ(十一, 1-2)

나. 若七 言ニ尸 有七ㅣソニロ矛尸のㄱ 者 智ㄱ 一ㄹ立, 應七ソㄱ, 不矢うㅣ(十四, 19)

(11)의 '-〻七(엇)-'은 계사 '-ㄹ(이)-' 뒤에만 나타난다. (11)의 계사 '-ㄹ(이)-' 앞에는 항상 動名詞 語尾 '-ㄱ(은)-'이 왔는데 이 둘이 融合되면 15세기의 선어말 어미 '-니-'가 된다. 그러나,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서는 '-니-'가 하나의 口訣字 'ㄴ(니)'로 표기되지 않고 항상 두 개의 口訣字 'ㄱㄹ(ㄴ이)'로 표기된다. 이것은 고려 중기에는 이러한 融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하는바, 'ㄱㄹ(ㄴ이)'의 'ㄹ(이)'를 계사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계사 '-ㄹ(이)-'에 뒤따르는 '-〻七(엇)-'의 '-〻(어)-'가 15세기의 선어말 어미 '-거/어/나-'의 '-거-'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사 다음에는 確認法 語尾 '-거/어/나-' 중에서 '-거-'가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기(高永根 1980 참고)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ㄹ〻七(이엇)-'의 '-〻(어)-'는 계사 다음의 '-去(거)-'가 '-〻(어)-'로 교체되어 표기된 예라고 할 수 있다. (11)의 文脈으로 보아도 '-〻七(엇)-'의 '-〻(어)-'가 確認法의 선어말 어미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〻七(엇)-'의 '-七(ㅅ)-'은 感歎法 語尾로 추측되는데, (11.나-다)의 '-〻七ㅣ(엇다)'는 15세기에서 확인되는 데에 비하여 (11.가)의 '-〻七ロ(엇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12.가)의 '-ㄹうㅣ(이오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계사 '-ㄹ(이)-' 다음에 선어말 어미 '-う(오)-' 즉 15세기의 이른바 意圖法 語尾(이숭녕 1960 참조) '-오/우-'가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선어말 어미 '-ロ(고)-' 즉 15세기의 이른바 確認法 語尾 '-거-'가 온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ㄹうㅣ(이오다)'에 15세기의 '-이로다'를 대응시키는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이거다'의 'ㄱ'이 탈락한 '-이어다'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첫째 방법은 '-ㄹㅅㅣ(이로다)'로 표기되지 않고 '-ㄹうㅣ(이오다)'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15세기의 음운현상과 크게 어긋난다. 15세기에는 계사 '-이-' 뒤에 의도법 어미 '-오/우-'가 바로 통합될 때에는 '-이로-'로 실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舊譯仁王經》의 '-ㄹうㅣ(이오다)'는 계사 '-ㄹ(이)-' 다음에 의도법 어미 '-오/우-'가 온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舊譯仁王經》의 '-うㅣ(오다)'는 主語가 一人稱일 때 쓰이는데,

(12.가)에서는 主語가 一人稱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13) 가. 我王 等ソコ … 摩訶般若波羅蜜ミ … 光讚般若波羅蜜ミノ乙, 說ミハニうㅣ(二, 21-23)

나. 天尊ㄱ 快分 十四王ラミ乙, 說ロハニㄱ 是リ 故ヘ 我ㄱ 今ソㄱ 略分 佛乙, 歡ソ白ロトうㅣソでハニㅣ(十一, 13)

나. 汝ㄱ 今ソㄱ 聽ノ尸, 無七う 我ㄱ 今ソㄱ 說ノ尸, 無七白うㅣ(十四, 21)

(13)의 '-うㅣ(오다)'는 허웅(1958)의 人稱語尾說에서처럼 모두 一人稱 主語에 호응하고 있지만 (12.가)의 '-うㅣ(오다)'는 三人稱 主語인 '三品士ㄱ(은)'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2.가)에 나오는 '-リうㅣ(이오다)'의 '-う(오)-'가 15세기의 의도법 어미 '-오/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 '-う(오)'는 원래 '-ロ(고)-'였는데, 계사 다음에서 'ㄱ'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적용되어 '-う(오)-'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확인법 어미 '-거-'는 고려 중기에 '-去(거)-'뿐만 아니라 '-ロ(고)-'로도 표기되기 때문이다.

(12.나)의 '不矢うㅣ(안디오다)'는 (12.가)에 나오는 '-リうㅣ(이오다)'의 文法範疇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이다. 이곳의 '-う(오)-'는 주어가 三人稱인 '智ㄱ(은)'이므로 15세기의 의도법 어미 '-오/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否定辭 '不矢(안디)'는 [i]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계사가 오더라도 계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不矢(안디)'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不矢うㅣ(안디오다)'의 기저에는 계사가 존재하고, 그 계사 뒤에 '-う(오)-'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う(오)-'는 (12.나)의 문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ソニロ尸のㄱ(ᄒᆞ시고ᄅᆞᆷ도)'의 '-ロ(고)-'와 序列이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ロ(고)-'는 '-去(거)-'의 先代形인 것으로 추정되는바(南豊鉉 1990 : 100) 15세기의 확인법 어미 '-거/어/나-'의 '-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基底表示 '不矢ロㅣ(안디고다)'에 계사 다음의 'ㄱ'을 탈락시키는 形態音素論的 規則이 적용된 결과 '不矢うㅣ(안디오다)'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의 '去(거)→ミ(어)'의 예와 (12)의 'ロ(고)→う(오)'의 예들은 高麗中期에—구체적으로 말하면 12世紀에—이미 다음과 같은 형태음소론적 규칙이 존재했음을 뜻한다.

規則 A. G ⟶ ø / iy + ——(단, iy는 계사임)[6]

이 規則은 계사 뒤에서 'ㄱ'이 'ㅇ'으로 바뀌는 15세기의 규칙과 완전히 같다. 15세기에서는 연결어미의 '-고'도 계사 다음에서 '-오'로 교체되나 《華嚴經》과 《舊譯仁王經》에는 계

6) 李基文(1969 : 144)는 15세기의 계사가 단순한 /i/가 아니라 /iy/라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 견해를 따른다. 小文字 'k'나 'g'를 쓰지 않고 大文字 'G'를 사용한 것은 有聲子音과 無聲子音의 구별이 이 논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 다음에 연결어미 '-고'가 직접 통합된 예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계사 다음의 모든 'ㄱ'이 'ㅇ'으로 교체되었다고 一般化할 수는 없지만, 확인법 어미 '-去/ㅁ(거/고)-'의 'ㄱ'이 'ø'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ㄱ' 脫落 規則은 15세기의 규칙과 약간 다르다. 15세기에서는 '알十고, 퓌十거든' 등의 예들이 각각 '알오, 퓌어든'으로 표기되므로 語幹末의 /r/과 /y/ 뒤에서도 'ㄱ'이 弱化 혹은 脫落한다. 이에 비해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서의 'ㄱ' 탈락은[7] 오직 계사 뒤의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ㄱ' 弱化 혹은 脫落 規則의 同化主는 애초에는 계사의 /y/ 하나뿐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y/와 /r/이 同化主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ㄱ' 脫落 規則이 15세기에 들어서서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

規則 A′. G ⟶ ø / [αcons, αvoc] + ——

15세기의 /y/와 /r/은 'α' 規約으로 묶일 수 있는바 규칙 A′는 아주 一般化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規則 A가 必須的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11-12)의 예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었으나 다음의 예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가. 盛暑ㄹ四 災毒ㄹ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衆ㄱ 惱乙 拾離ノ尸ム 一切乙 皆 盡ᄋᆞ亡で立(八 1)

나. 暑退ソᄋᆞ 初ㄹ去ㄱㅣ十ㄱ(八 2)

다. 動尸 不能ㄹ矢ㄹ尸 所ㄹ去ナ亢七ㅣ(八 18)

(15) 가. 佛ㄱ 即ᄒᆞ 時ㄹ去ᄒᆞㄱの乙, 知ニᄒᆞ(三 13)

나. 一, 非矢去ᄒᆞ 異, 非矢去ᄒᆞ 故去 名ᄋᆞ 續諦ミノ不ㄹᄒᆞ(十四, 8)

(16) 劫ᄋᆞ十 具ᄒᆞ 地度乙 修七で七 諸ㄱ 功德ㄹロでㄱ彳(九 6)

(17) 가. 度量ノ亢, 可七ソㄱ, 不矢ㄹロㄱ 唯ハ 佛人 與七 佛人ㄹニシ 乃シ 斯ㄹ 事乙, 知ニ亢七ㅣ(十一, 23-24)

나. 若七 言ニ尸 無七ㅣソニᄒᆞ不尸のㄱ 者 智ㄱ 二ㄹ亢, 應七ソㄱ, 不矢ㄹロ乙ᄒᆞ(十四, 18-19)

(14)와 (15.가)의 '-ㄹ去(이거)-'는 모두 계사 '-ㄹ(이)-' 뒤에 '-去(거)-'가 온 것으로서 '-去(거)-'가 '-ᄋᆞ(어)-'로 교체되지 않았다. (15.나)의 '非矢去ᄒᆞ(안디거오)'에서도 '-去(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16-17)의 '-ㄹロ(이고)-'도 모두 계사 다음에 확인법 어

7) 'ㄱ'이 'ㅇ'으로 바뀌는 15세기의 규칙을 弱化 규칙으로 보느냐 脫落 규칙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갈린다. 借字表記를 다루는 이 글에서는 脫落 규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口訣字 'ᄋᆞ(어)'나 'ᄒᆞ(오)'가 弱化된 初聲 子音을 가지고 있었다고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 '-ㅁ(고)-'가 온 예인데 이때에도 '-ㅁ(고)-'가 '-ㅇ(오)-'로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規則 A는 隨意的인 규칙이었음이 확실하다.

規則 A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隨意的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12세기 혹은 이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이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암시한다. 대개의 音韻規則은 隨意的인 규칙으로부터 시작하여 必須的인 규칙으로 發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11)의 '-ㅣᄋᆞ(이어)-'와 (12.가)의 '-ㅣㅇ(이오)-' 그리고 (12.나)의 '不矣ㅇㅣ(안디오다)'는 改新形이고, (14-15)의 '-ㅣ去(이거)-, 非矣去ㅇ(인디거오)'와 (16-17)의 '-ㅣㅁ(이고)-'는 保守形이라고 할 수 있다.

(11)의 '-ㅣᄋᆞ(이어)-'와 (12.가)의 '-ㅣㅇ(이오)-' 그리고 (12.나)의 '不矣ㅇㅣ(안디오다)'는 계사 다음에서 확인법 어미 '-去/ㅁ(거/고)-'가 '-ᄋᆞ/ㅇ(어/오)-'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2세기보다 앞선 시기의 吏讀 자료에는 '-去(거)-'의 예가 많지 않으며 더욱이 '-是去(이거)-'의 예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吏讀 자료의 경우 13세기 중엽의 자료인 尙書都官貼에서부터 '-是去(이거)-'가 나오기는 하지만 '-是去(이거)-'가 '-是良(이어)-'로 교체되어 표시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鄕歌에는 선어말 어미 '-거-'가 '-어-'로 교체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예가 나온다.

(18) 가. 二肹隱 吾下於叱古(處容歌 5)
나. 二肹隱 誰支下焉古(處容歌 6)

(18.가)의 '-於叱(엇)-'은 (11)의 '-ᄋᆞ七(엇)-'과 완전히 일치한다. 지금까지 이 '-於叱-'의 文法的 機能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엇-'으로 읽어 왔으나 그 문법적 기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文脈으로 보아 이 '-於叱-'은 確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 '-於叱-'의 앞에는 표면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계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8.가)의 '-於叱(엇)-'도 規則 A가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18.나)의 '-焉古(언고)'도 (18.가)의 '-於叱古(엇고)'와 'ㄴ : ㅅ'의 대립에서만 차이가 날 뿐 역시 規則 A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規則 A가 언제부터 발생했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三國遺事》에 수록된 鄕歌가 어느 時代의 表記法을 反影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三國遺事》 향가는 新羅時代의 노래이므로 (18)의 표기는 古代國語의 表記法을 반영한다고 믿는 견해에서는 規則 A가 古代國語의 段階에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에, 향가가 비록 고대국어 단계에서부터 불려지고 있었지만 一然이 향가를 採錄한 것은 13세기 중엽의 일이므로, (18)의 표기에는 13세기 중엽의 發音과 表記法이 反影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8)의 표기법은 13세기 중엽의 언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된다.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鄕歌의 모든 表記가 新羅時代의 言語 現實을 그대로 反影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同意할 수 없다. 鄕歌의 表記法과 《舊譯仁王經》, 《華嚴經》 등의 釋讀口訣 表記法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類似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향가의 '-音叱如, -音如'와 '-每如' 등은 각각 석독 구결의 '-亇七ㅣ(음짜)-'와 '-亇ㅣ(마다)'와 일치하고, 향가의 尊敬法 語尾 '-賜-'는 《華嚴經》의 '-勿(시)-'에 일치한다. 나아가서 향가의 이른바 指定文字(金完鎭 1980ㄱ) '支'이 《華嚴經》의 '支'에 대응하는 예도 들 수 있다(李丞宰 1993 : 357 이하 참조). 이들을 감안하여 《三國遺事》 소재 향가의 표기법은 13세기의 發音과 表記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18)의 '-於叱-'과 '-焉-'은 12세기부터 시작된 'ㄱ' 탈락 규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5세기에는 時相法 선어말 어미 '-리-'에 확인법-어미 '-거/어/나-'의 '-거-'가 통합될 때 '-거-'가 '-어-'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華嚴經》과 《舊譯仁王經》에는 '-孑(리)-'에 '-去(거)-'가 통합된 '-孑去(리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孑(리)-'에 '-ㅇ(어)-'가 통합된 '-孑ㅇ(리어)-'가 《華嚴經》에 한 번 나오는데, 비록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예이다.

(19) 云何 於一切衆生七 中ㅇ十 爲第一ㄹ尸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無等等 爲の乙ソナ孑ㅇ七ロ(二 7-9)

이 예의 'ソナ孑ㅇ七ロ(ᄒᆞ겨리엇고)'는 他動詞이므로 '-孑(리)-' 다음에 '-거/어/나-'의 '-어-'가 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華嚴經》에는 動名詞 語尾의 용례가 아주 많이 나오는바 '-孑(리)-'는 '-尸(옳)+ㄹ(이)-' 즉 동명사 어미와 계사로 再分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19)의 '-ㅇ七(엇)-'은 계사에 통합된 셈이므로 '-ㅇ七(엇)-'의 '-ㅇ(어)-'는 '-去(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ㅇ(어)-'도 規則 A가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舊譯仁王經》의 '令'는 아직 정확한 독법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動名詞 語尾 '-尸(옳)'과 形式名詞 '-이-' 그리고 繫詞 '-ㄹ(이)-'의 세 가지가 融合된 '리'로 읽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독법으로 보인다.[8] 즉, '孑(리)'가 동명사 어미에 바로 계사가 통합된 것이라고 한다면, '令(리)'는 동명사 어미와 계사 사이에 형식명사 '-이-'가 개입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令(리)'에 통합되는 疑問添辭 '-가, -고'가 각각 '-ㅇ(아), -ㄱ(오)'로 표기되어 눈길을 끈다.

(20) 爾七ソㄱ 時十 波斯匿王ㄱ 言ニ尸 第一義七 中ㅇ十 世諦, 有七ㅣソロㄱ令ㅇ 不矢ㄹ

8) 문맥에 따라서는 '-옳(동명사어미)+이(형식명사)'의 두 가지가 융합된 구성으로 보아야 할 곳도 있다. 계사를 제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곳도 있는 것이다.

ᄒᆞᄀᆞ뎌ᄒᆞ(十四, 18)

(21) 가. 世尊下 一切 菩薩ㄱ 云何七ᄉᆞᄀᆞ乙 佛果乙, 護ᄉᆞᄒᆞ 云 何七ᄉᆞᄀᆞ乙 十地七 行乙, 護ㅅᄉᆞᆫ七 因緣ㄹᆡᄉᆞᄅᆞᄒᆞᄉᆞᆫᄒᆞ(三, 22-23)

나. 佛十, 白ᄒᆞ 言ㄴᆡ尸 云 何七ᄃᆞ 十方七 諸ㄴᆡㄱ 如來ᄉᆞ 一切菩薩ᄉᆞㅅᄌᆞ 文字乙, 離, 不多ᄉᆞᄒᆞ 而ᄅᆞ 諸ㄱ 法上ᄒᆞ十, 行ᄉᆞㄴᆡᄉᆞᆫ七ᄒᆡᄉᆞᄅᆞᄒᆞᄉᆞᆫᄒᆞ(十五, 21-22)

(20)의 'ᄉᆞᄅᆞᄒᆞᄉᆞᆫᄒᆞ(ᄒᆞ고오리아)'는[9] 選定 疑問에 쓰인 것으로서 '-ᄉᆞᆫᄒᆞ(리아)'는 '-리十가'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21)의 'ᄉᆞᄅᆞᄒᆞᄉᆞᆫᄒᆞ(ᄒᆞ고오리오)'는 疑問辭 '何七(ㅅ)'에 호응하고 있으므로 '-ᄉᆞᆫᄒᆞ(리오)'의 'ᄒᆞ(오)'가 說明 疑問에 쓰이는 疑問添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ᄉᆞᆫᄒᆞ(리오)'도 '-리十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規則 A가 (20-21)의 예들에도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는 '-ᄉᆞ(리)-' 뒤에 오는 疑問添辭 '-ㅁ(고)'가 '-ᄒᆞ(오)'로 교체되지 않았다.

(22) 佛子ᄒᆞ 云何七ᄉᆞᄀᆞ乙 用心ᄉᆞᄀᆞㅣ十 能支 一切勝妙功德乙 獲尸丁ㅅᄉᆞᆫㅁᄉᆞㅅ尸ᄋᆞㄱ (二 17-18)

이곳의 'ㅅᄉᆞᆫㅁ(호리고)'는 역시 의문사 '何七(ㅅ)'에 대응하는바 '-ㅁ(고)'가 의문첨사임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ᄉᆞ(리)-' 뒤에서 '-ㅁ(고)'가 '-ᄒᆞ(오)'로 교체되지 않은 것은 規則 A가 隨意的으로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規則 A는 확인법 어미 '-ᄎᆞ/ㅁ(거/고)-'에서 뿐만 아니라 의문첨사 '-可(?)/ㅁ(가/고)-'에도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ㄱ' 탈락의 동화주가 계사 '-ㄹ(이)-'일 때도 수의적이고, '-ᄉᆞ(리)-'일 때에도 수의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동화주가 '-ㅅ(리)-'일 때에도 'ㄱ' 탈락 규칙은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ㄷ/ : /ㄹ/

15세기에는 계사 '-이-'에 통합되는 終結語尾 '-다'가 '-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다. 그런데, 《華嚴經》과 《舊譯仁王經》에서도 이러한 교체가 발견된다.

(23) 我ㄱ 今ᄉᆞᄀᆞ 已ᄉᆞ 諸ㄱ 菩薩尸 爲ᄉᆞ 佛矢 往ᄒᆞ十 修勿ᄒᆞᄀᆞᄃᆞᄒᆞᆫ七 淸淨行乙 說ᄒᆞㅁ乙

9) 이것과 對等한 위치에 온 것이 '不矢ㄹᆞᄒᆞᄀᆞᄃᆞᄒᆞᆫ(안디이온ᄂᆞ아)'인데 여기에서 'ᄃᆞ(ᄂᆞ)'와 'ᄉᆞ(리)'의 序列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ᄃᆞ(ᄂᆞ)'의 여러 용법 중에는 形式名詞的인 用法이 있는바, 이것과 같은 위치에 온 'ᄉᆞ(리)'에도 형식명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형식명사 바로 뒤에 계사가 통합되었을 것이다.

ᄒᆞᄀᆞᄅᆞ四(八 23)

(24) 가. 唯ㅅ 佛ᄅᆞ니尸 一人ᄅᆞ니ᄉᆡ 淨土ᄀᆞ十, 居ᄉᆞ니ᄀᆞᄅᆞ四 一切衆生ᄀᆞ 暫ᄉᆡ火七 報ᄀᆞ十, 住ᄉᆞᄅᆞᄀᆞ乙(十一, 6-7)

나. 幻花ᄅᆞ 幻花乙, 見ᄐᆞᄀᆞᄅᆞ四 婆羅門ᄋᆞ … 首陁ᄋᆞᄂᆞᄅᆞ 神我等ᄉᆞᄀᆞ 色心乙 名ᄀᆞ 爲幻諦ᄋᆞᄂᆞᄉᆞᄒᆞᄅᆞᄒᆞ(十四, 1-2)

다. 皆七 是ᄅᆞᄀᆞ 假誑ᄉᆞᄀᆞ矢 空中ᄀᆞ七 花, 如ㅣᄉᆞᄂᆞᄀᆞᄅᆞ四 十住菩薩ㅅ 諸ㄴᆡᄀᆞ 佛ㅅ七 五眠刀 幻諦乙, 如這 而ᄅᆞ 見ㄴᆡᄐᆞᄀᆞᄅᆞᄂᆞㅣ(十四, 11-13)

라. 汝ᄀᆞ 於過去七 七佛十 已ᄉᆡ 一ᄅᆞ뎌七 義ᄋᆞ 二ᄅᆞ뎌七 義ᄋᆞᄂᆞ乙, 問白ᄀᆞᄒᆞᄂᆞᄀᆞᄅᆞ四 汝ᄀᆞ 今ᄉᆞᄀᆞ 聽ᄂᆞ尸, 無七ᄒᆞ(十四, 20-21)

마. 譬のᄀᆞ 牛ᄅᆞ 二角, 若ㅣᄉᆞᄒᆞ 照解ᄀᆞ十 無二ᄂᆞᄀᆞの乙, 見ᄐᆞᄀᆞᄅᆞ四 二諦ᄀᆞ 常ᄅᆞ 卽ᄉᆞᄀᆞ뎌, 不矢ᄅᆞᄂᆞᄅᆞᄒᆞ(十五, 3-4)

바. 解ᄉᆞᄀᆞ뎌七 心ᄀᆞ十 二, 不矢ᄀᆞの乙 見ᄐᆞᄀᆞᄅᆞ四 二乙, 求ᄂᆞᄀᆞᄆᆞ 得ᄀᆞᄒᆞᄉᆞ, 可七 ᄉᆞᄀᆞ, 不矢ᄒᆞ(十五, 4-5)

(23)의 '說ᄀᆞᄆᆞ乙ᄒᆞᄀᆞᄅᆞ四(니ᄅᆞ골온이라)' 다음에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곳의 '-ᄅᆞ四(이라)'는 계사에 종결어미가 통합된 것이 확실하다. (24)는 《舊譯仁王經》의 예인데, 이곳의 '-ᄅᆞ四(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15세기와 마찬가지로 고려 중기에도 계사 다음에서의 '다 → 라' 교체가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規則 B. D ⟶ r / iy + —— a(단, iy는 계사임)

그런데, 이 교체 현상이 必須的이었는지 隨意的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계사 다음에 종결어미 '-ㅣ(다)'가 통합된 예가 《華嚴經》과 《舊譯仁王經》에서 모두 발견된다.

(25) 가. 是乙 以ᄉᆡᄀᆞ 而ᄅᆞ 廣大心乙 生ᄅᆞᄂᆞᄀᆞᄅᆞㅣ(九 10-11)

나. 菩薩ᄀᆞ 是乙 以ᄉᆡᄀᆞ 初七ᄒᆞ 發心ᄉᆞᄂᆞᄀᆞᄅᆞㅣ(九 19)

다. 譬のᄀᆞ 一切 世間七 中ᄀᆞ十 而ᄅᆞ 隨意妙寶珠ᄅᆞ 有ᄀᆞ, 如支ᄉᆞᄀᆞᄅᆞㅣ(十 9)

(26) 가. 二乙, 求ᄂᆞᄀᆞᄆᆞ 得ᄀᆞᄒᆞᄉᆞ, 可七ᄉᆞᄀᆞ, 不矢ᄒᆞ 謂ᄂᆞᄉᆞ, 非矢ᄅᆞㅣ(十五, 4-5)

나. 非矢ᄅᆞㅣ(十五, 4-5 欄上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

(25-26)의 문장 끝에 오는 '-ᄅᆞㅣ(이다)'는 계사 '-ᄅᆞ(이)-'에 종결어미 '-ㅣ(다)'가 통합된 것이 분명하다. 이곳의 '-ᄅᆞㅣ(이다)'를 'ᄒᆞ쇼셔'체의 恭遜法 語尾 '-이다'로 보아서는 안 된다. (25)는 모두 文殊師利菩薩이 衆生들에게 말한 것이므로 'ᄒᆞ쇼셔'체의 '-이다'가 쓰일 환경이 아니다. 또한, (25)는 偈頌 부분에 나오는 서술문으로서 주변의 문장들이 'ᄉᆞ

ナ丨(ᄒᆞ겨다), ノ矛ナ丨(호리겨다), -トコリ四(눈이라)' 등으로 끝난다는 점도 중요하다. (26)의 '-リ丨(이다)'도 'ᄒᆞ쇼셔'체의 '-이다'가 아니라 계사에 종결어미가 통합된 '-이+다'를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

(25-26)의 예들은 規則 B가 수의적이었음을 뜻한다. (23-24)의 '-リ四(이라)'뿐만 아니라 (25-26)의 '-リ丨(이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5세기의 종결어미 '다→라'의 교체는 필수적이었지만, 12세기의 '丨(다)→四(라)' 교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12세기 혹은 바로 그 전에 시작된 교체가 15세기에는 완결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15세기 문법에서 '다→라'의 교체로 기술하지 않고 '-다'와 '-라'가 이미 基底에서부터 서로 다른 형태였다는 기술도 있다. 즉 '-다'와 '-라'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아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10] 그러나 (23-24)의 '-リ四(이라)'와 (25-26)의 '-リ丨(이다)'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3-24)의 '-リ四(이라)'와 (25)의 '-リ丨(이다)'는 모두 동명사 어미 '-コ(은)' 다음에 온 것으로서 상호간의 의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동명사 어미는 화자의 서법을 중화시키는 힘을 가지므로 여기서는 '-リ四(이라)'의 '-四(라)'와 '-リ丨(이다)'의 '-丨(다)'가 同一한 形態素의 異形態라는 견해를 택한다.

한편 15세기의 종결어미 '-다'는 시상법 어미 '-리-' 뒤에서 항상 '-라'로 교체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華嚴經》에서도 '-矛四(리라)'만 발견되고 '-矛丨(리다)'는 발견되지 않는다. 《舊譯仁王經》에서는 '-矛四(리라)'와 '-矛丨(리다)'의 예가 모두 보이지 않는다.

(27) 가. 佛子ㅅ 若七 諸コ 菩薩リ 善支 其心乙 用ソで尸のコ 則支 一切勝妙功德乙 獲で<u>矛四</u>(二 12-13)

나. 信コ … 諸コ 善法乙 長養ソ豕 … 愛流乙 出ソ豕ソナ<u>矛四</u> 涅般ミ 無上道ミノ令乙 開ソ豕 示ソ豕ソナ<u>矛</u>ら(九 20-21)

다. 菩薩コ 勤七 大悲行乙 修ㅅ尔 願のコ 一切乙 度リロハ豕ノ尸ム 果這尸 不ソ尸丁ノ尸 無リソㅅナ<u>矛四</u>(十七 9)

라. 手ㅅ十 供具乙 出ノコム 難リシ 思議ノ<u>矛四</u> 是リ, 如支 一コ 導師乙 供養ソナら(十七 2-3)

물론 '-令丨(리다)' 혹은 '-令四(리라)'의 예들도 보이지 않는다.

(27)의 '-矛四(리라)'를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세울 수 있다.

규칙 C. D > r / ri + —— a (단, 'ri'는 선어말 어미임)

10) 이러한 견해로는 安商俊(1974), 李承旭(1980), 李珖鎬(1983) 등이 있다.

이 규칙은 共時的 規則이 아니다. 12세기 자료에는 '-ᄀᆞ(리다)'는 보이지 않고, '-ᄀᆞ四(리라)'만 보이므로, 12세기 경에는 이미 이 규칙의 적용이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규칙은 規則 B와 아주 유사하다. 시상법 어미 '-리-'가 음운론적으로 /-riy-/였다고 하면 規則 B와 C는 同一한 規則으로 묶을 수 있다. 실제로 계사 '-이-'와 시상법 어미 '-리-'의 音韻論的 特性은 거의 동일하다.

(28) 가. 아니+다→아니라　　아니+더니→아니러니
　　나. ᄒᆞ리+다→ᄒᆞ리라　　ᄒᆞ리+더니→ᄒᆞ리러니
　　다. ᄒᆞ니+다→ᄒᆞ니라　　ᄒᆞ니+더니→ᄒᆞ니러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5세기에는 終結語尾 '-다'와 先語末 語尾 '-더-'가 否定素 '아니'와 先語末 語尾 '-리-' 그리고 '-니-' 뒤에서 각각 '-라'와 '-러-'로 교체된다.[11] 또한 이들 뒤에서 확인법 어미 '-거-'와 연결어미 '-고' 그리고 의문첨사 '-고/가'가 각각 '-어-'와 '-오-' 그리고 '-오/아-'로 교체된다.

(29) 가. 아니+고→아니오　　아니+거니→아니어니
　　나. ᄒᆞ리+가→ᄒᆞ리아　　ᄒᆞ리+거니→ᄒᆞ리어니
　　다. ᄒᆞ니+가→ᄒᆞ니아, ᄒᆞ냐　　ᄒᆞ니+고→ᄒᆞ니오, ᄒᆞ뇨

(29)의 'ㄱ' 탈락 현상을 논거로 하여, 부정사 '아니' 그리고 선어말 어미 '-리-', '-니-' 등의 '-이-' 모음에는 계사 '-이-'가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規則 B와 C의 機能的 單一性 그리고 構造的 類似性을 감안하여 선어말 어미 '-리-'를 /-riy-/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規則 B와 C는 다음과 같이 하나로 묶인다.

규칙 D. D ⟶ r / iy + ⟶ a

이처럼 하나의 규칙으로 묶으면 形態論的 情報를 구태여 명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規則 D가 音韻規則에 가까운 모습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規則 D는 15세기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12세기의 규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ᄀᆞ(리)-' 다음에서의 '-ᄀᆞ(다) > -四(라)' 교체 즉 規則 C는 12세기에 이미 필수적이었다.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는 '-ᄀᆞ(리다)'의 예가 이미 보이지 않고 '-ᄀᆞ四(리라)'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계사 '-ㅣ(이)-' 다음에서의 'ㄱ(다) → 四(라)' 교체 즉 規則 B는 隨意的이었으므로 12세기에 進行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달리

11) 그러나 '-디빙, -디외, -디웨' 등의 'ㄷ'은 'ㄹ'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 否定素 '아니'가 마치 名詞 뒤에 계사가 통합된 것처럼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安秉禧(1959)를 참고하기 바란다.

말하면, 規則 B는 고려 중기의 共時的 規則이지만, 規則 C는 이미 通時的으로 굳어진 규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시적 규칙과 통시적 규칙이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면 歷史的 發達 過程에서의 微細한 差異를 오히려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고려 중기의 자료에서 '-ᄐᆡ(리다)'가 발견될 때까지는 '-ᄐ(리)-' 다음에서의 'ㅣ(다) > 四(라)' 교체가 계사 '-ㄹ(이)-' 다음에서의 'ㅣ(다) → 四(라)' 교체보다 이른 시기에 일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감안하면 規則 B와 規則 C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려 중기의 자료에서 '-ᄐᆡ(리다)'가 발견될 때까지 두 규칙을 하나로 묶는 것은 留保해 둔다.

Ⅳ. /ø/ : /ㄹ/

15세기에는 繫詞 '-이-'에 副動詞 語尾 '-아/어'가 통합되면 '-이라'로 실현되는 현상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華嚴經》에도 이러한 교체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30) 가. 柔軟食乙 得 當 願 衆生 大悲ᄒᆞ 熏ノ ᄀᆞ 所ㄹ四 心意 柔軟ソで立(七 16)

나. 盛暑ㄹ四 災毒ㄹ 去ᄀᆞㅣ十ᄀᆞ 當 願 衆生 衆ᄀᆞ 惱乙 捨離ノ尸ム 一切乙 皆 盡ᄒᆞ で立(八 1)

다. 或ソᄀᆞ 長者ㄹ四尒 邑七 中ᄒᆞ七 主ㄹ尸, 爲の乙ソう 或ソᄀᆞ 賈客ㄹ四 商人ラ 導ㄹ尸, 爲の乙ソう 或 國王ᄉᆞ 及七 大臣ㄹ尸, 爲の乙ソう 或ソᄀᆞ 良醫ㄹ尸の 乙 作ソᄒᆞ尒 衆ᄀᆞ 論乙 善支ソう(十九 8-9)

(30)의 '-ㄹ四(이라)'는 계사 '-ㄹ(이)-'에 副動詞 語尾 '-아'가 통합된 것으로서 '-이라'로 읽힌다. 그런데, (30.다)의 '長者ㄹ四尒(이라곰)'과 '賈客ㄹ四(이라)'는 統辭的으로 대등한 위치에 온 것이어서 흥미를 끈다. '-ㄹ四尒(이라곰)'은 形態論的 構成이 '作ソᄒᆞ尒(ᄒᆞ아곰)'의 'ソᄒᆞ尒(ᄒᆞ아곰)'과 유사하다. 여기서 '-ㄹ四尒(이라곰)'은 語幹이 繫詞 '-ㄹ(이)-'이기 때문에 후속하는 '-ᄒᆞ(아)'가 '-四(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ㄹ四(이라)'는 '-ㄹ四尒(이라곰)'과 거의 같은 意味 機能을 갖고, '-ㄹ四(이라)'의 '-四(라)'는 부동사 어미 '-ᄒᆞ(아)'가 계사 '-ㄹ(이)-' 다음에서 교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舊譯仁王經》에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31) 가. 圓智ᄀᆞ 無相乙ソニ下 三界七 王ㄹ四 三十生乙 盡ᄒᆞロ 等ᄒᆞ 大覺ソニう(十一, 3)

나. 眞義乙, 得ᄒᆞ 說トᄀᆞㄹ四 思議ノ立, 可七ソᄀᆞ, 不矢う 度量ノ立, 可七ソᄀᆞ, 不矢ㄹロᄀᆞ(十一, 23-24)

다. 成ソ ㄱ ミ … 善惡ミノ令ㄱ 一切之七 幻化リナ ㄱリ四 是乙 幻諦七 衆生ミノ矛リナ丨(十四, 10-11)

라. 法性ㄱ 本ㅅㅅ 無ソ ㄱ 性リ四 第一義リ孑 空リ孑 如リ孑ソう(十四, 25)

마. 法性ㄱ 本ㅅㅅ 無ソ ㄱ 性リ四 第一義ㅅソロ ㄱ 空リ孑 如リ孑ソう(十四, 25 欄上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

바. 無刀 無ソ ㄱ矢シ 諦 實ソ ㄱで七 無リでㄱリ四 寂滅リ孑 第一空リ孑ソう(十五, 1-2)

사. 佛ミ 及ハ 衆生ミノ令ㄱ 一リ四 而ㅅ 二, 無七ナ丨(十五, 11-12)

(31)의 '-リ四(이라)'는 '-リ四尒(이라곰)'으로 바꾸어도 文脈이 잘 통한다. 즉, 'ソ〉尒(ᄒᆞ아곰)'에 '-リ四尒(이라곰)'이 대응하듯이 'ソ〉(ᄒᆞ아)'에 '-リ四(이라)'가 統辭論的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31)의 '-リ四(이라)'의 '-四(라)'는 終結語尾 '-丨(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副動詞 語尾 '-〉(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계사 '-リ(이)-' 뒤의 부동사 어미 '-〉(아)'는 '-四(라)'로 교체된다는 규칙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계사 '-リ(이)-'와 부동사 어미 '-〉(아)' 사이에 'ㄹ'이 挿入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어 기술할 수도 있다.

規則 E. ø 〉 r / iy + —— + a(단, iy는 계사, 'a'는 부동사 어미임)

그런데, 계사는 /-iy-/가 아니라 /-ir-/이었다는 논의(Ramstedt 1949 : 69)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ㄹ' 挿入 規則이 아니라 'ㄹ' 脫落 規則을 세워야 하는데, 'ㄹ' 탈락 규칙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買客(명사)+일(계사)+고(연결어미)'에서 'ㄹ' 뒤의 'ㄱ'이 삭제되면 즉 規則 A′가 적용되면 '買客일오'가 된다. 이 때, '買客일오'의 'ㄹ'이 다시 탈락한 '買客이오'가 올바른 音聲形이므로 다시 'ㄹ' 탈락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ㄹ' 탈락 규칙은 '살오(←살+고), 놀오(←놀+고)' 등의 예에서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구결자 'リ'는 '是'의 새김 '이'로 읽힌다는 점이 중요하다. '是'字의 새김은 /-i-/ 혹은 /-iy-/이지 /-ir-/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계사가 李基文(1969 : 144)처럼 /-iy-/였다고 보고 특수한 환경에서 形態論的 要因에 따라 'ㄹ'이 挿入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사 뒤에 의도법 어미 '-う(오)-'가 직접 통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의 구결에는 이러한 예들이 나타나지 않은바, 계사와 '-う(오)-' 사이에서도 'ㄹ'이 삽입되었는지 삽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의도법 어미 '-오/우-' 혹은 동명사 어미 '-옴/움-' 앞에서 'ㄹ'이 삽입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나온다면 'ㄹ'이 繫詞와 대부분의 母音 사이에 挿入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副動詞 語尾 '-아' 앞에서만 'ㄹ'이 挿入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ㄹ' 삽입 규칙은 必須的이었다. 계사 '-ㅣ(이)-'와 부동사 어미 '-ㅗ(아)' 사이에 'ㄹ'이 삽입되지 않은 '-ㅣㅗ(이아)'의 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ㅣㅗ(이아)'의 예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의 '-ㅣ(이)-'는 모두 末音添記字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계사 '-ㅣ(이)-'라고 할 수 없다.

(32) 가. 菩薩ㅣ … 於佛法僧ㅗ十 淨信乙 生ㅣㅗ 是乙 以ㅅㅗ 而ᄆ 廣大心乙 生ㅣナㄱㅣ(九 10-11)

나. 是ㅣ 如支ソㄱ乙 皆七 手七 中乙 從七 出ㅣㅗ尒 道樹ㅗ七 諸ㄱ 最勝ㅣ勿ㄱ乙 供養ソ白でう(十五 19)

다. 菩提樹七 前ㅗ十 持ㅣㅗ尒 佛乙 供ソ白でう(十五 23)

라. 菩薩ㄱ … 香水乙 空乙 從七 雨ㅣㅗ(十六 4)

마. 欲う尸 其所乙 隨う 皆七 滿, 令ㅣㅗ尒(十七 23)

(32)의 '生ㅣㅗ(내아), 出ㅣㅗ尒(내아곰), 持ㅣㅗ尒(디니아곰), 雨ㅣㅗ(쓰려), 令ㅣㅗ尒(시기아곰, ᄒᆞ야곰)' 등의 '-ㅣ(이)-'는 모두 動詞의 語幹을 밝히기 위한 末音添記字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ㅣ(이)-'는 名詞 뒤에 통합되는 繫詞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鄕歌에도 'ㄹ'이 挿入된 듯한 예가 나온다.

(33) 二 于萬隱 吾羅(禱千手觀音歌 7)

一等沙 隱賜以古 只內乎叱等邪(禱千手觀音歌 8)

(33)의 '吾羅(내라)'에는 계사가 표기되지 않았으나 계사가 基底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또한 '吾羅'의 '-羅'가 종결어미의 '-羅'가 아니라 연결어미의 '-羅'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부동사 어미 '-아' 앞에 'ㄹ'이 삽입되어 '-羅'로 표기되었음을 암시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舊譯仁王經》과 《華嚴經》 口訣에 나타나는 몇 가지 形態音素論的 交替 現象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交替는 대부분 繫詞 '-ㅣ(이)-'와 관련된 것들로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바 보다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確認法 語尾 '-거/고-'의 'ㄱ'은 繫詞 '-이-' 뒤에서 脫落한다. 즉, 계사 '-ㅣ(이)-' 뒤에서 '-去/ㅁ(거/고)-'의 'ㄱ'이 탈락하여 '-ㅗ(어)/ㄱ(오)-'로 표기된다, 疑問添辭 '-가/고'도 아직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令(리)-'와 時相法 語尾 '-矛(리)-' 뒤

에서 '-ㅇ/ㅎ(아/오)'로 교체된다. 이 두 가지 교체는 隨意的으로 일어났다. 處容歌의 '吾下於叱古'와 '誰支下焉古'에도 이 교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舊譯仁王經》 구결과 《三國遺事》 소재의 鄕歌에 이 교체가 나타나는바 12世紀 혹은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이 교체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교체는 다음의 추론에 도움을 준다. 共同格 助詞 '-ㅅ(과)'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과'와 '-와'의 두 가지로 읽었을 것이고, 處格과 與格 助詞의 표기에 쓰이는 '-ㅓ(희)'도 '-에/애/의/이/예'와 '-긔/게'의 두 가지 계통으로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15세기의 終結語尾 '-다'가 繫詞 '-이-' 뒤에서 '-라'로 교체되듯이, '-ㅣ(다)'가 '-四(라)'로 교체된 예가 《舊譯仁王經》과 《華嚴經》에 두루 나온다. 이 교체도 물론 隨意的이었다. 이에 비하여 時相法 語尾 '-ᄀᆞ(리)-' 뒤에서는 종결어미 '-ㅣ(다)'가 必須的으로 '-四(라)'로 교체되었다. 이것은 '-ᄀᆞ(리)' 다음에서의 교체가 계사 '-ㅢ(이)-' 다음에서의 교체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ᄀᆞ(리)'-의 '이' 母音이 계사에서 비롯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교체가 적용된 시기에서 계사의 '-ㅢ(이)-'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ᄀᆞ(리)-' 뒤에서 '-ㅣ(다)'가 '-四(라)'로 교체된 것은 12世紀 以前에 이미 굳어졌지만, 계사 '-ㅢ(이)-' 다음에서의 교체는 .?世紀에 進行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는 것을 留保하였다.

셋째, 계사 '-ㅢ(이)-'와 副動詞 語尾 '-ㅇ(아)' 사이에는 'ㄹ'이 必須的으로 挿入되었다. 즉 'ㅢㅇ(이아), -ㅢㅇ尔(이아곰)'으로 표기된 예는 보이지 않고 '-ㅢ四(이라), -ㅢ四尔(이라곰)'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ㄹ'이 삽입되는 현상은 12世紀 以前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사 다음에 의도법 어미 '-오/우-'나 동명사 어미 '-옴/움'이 직접 통합된 예는 보이지 않는바, '오/우' 앞에서도 'ㄹ'이 삽입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논의한 여러 規則은 구태여 釋讀口訣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도 설정할 수 있다. 즉, 15세기의 한글 자료를 共時的으로 分析하더라도 비슷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發生하기 시작하였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舊譯仁王經》과 《華嚴經》과 같은 석독 구결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12世紀 경에 기록된 釋讀口訣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高永根(1980), "中世語의 語尾活用에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金完鎭(1980ㄱ),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蘭汀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80ㄴ), 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出版部.
———(1982), "古代國語의 母音調和에 대한 一考察",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南豊鉉(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 震檀學報 69.
———(1993), "高麗本《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93년 여름 口訣硏究會 구두 발표.
南權熙(1993), "高麗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四와 그 口訣資料", 93년 여름 口訣硏究會 구두 발표.
———(1994), "高麗本《大方廣佛華嚴經疏》卷 35의 書誌學的 考察", 94년 여름 口訣硏究會 구두 발표
安秉禧(1959), "中期語의 否定語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安商俊(1974), "15世紀 國語의 終結語尾 {-다/-라}에 對한 硏究", 西江大碩士論文.
梁柱東(1965), 增訂古歌硏究, 一潮閣.
李珖鎬(1983),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國語學 12.
李基文(1963), "十三世紀 中葉의 國語 資料", 東亞文化 1.
———(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李崇寧(1955/78),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대한 試論, 塔出版社.
———(1960), "Volitive Form으로서의 Prefinal Ending '-o/u-'의 介在에 대하여", 震檀學報 21.
李承旭(1980), "終結形語尾의 統合的 關係—{-다}·{-라}의 素性 記述을 위하여—", 蘭汀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李丞宰(1990), "高麗本《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1993), "高麗本《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이장희(1994), "《華嚴經》口訣字 '尸'의 기능과 독음", 94년 여름 口訣硏究會 구두 발표.
허 웅(1958), "삼입모음고", 서울대 논문집 7.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